

동성애 보도에 대한 프레이밍 분석* : 조선일보, 국민일보, 한겨레신문을 중심으로

조 인 숙**

유 정 칠***

논문초록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사회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 연구는 동성애 관련 갈등 보도에 대한 『국민일보』, 『한겨레신문』, 『조선일보』의 신문기사를 대상으로 1990년 1월 1일부터 2012년 7월 31일까지 기사 건수, 프레이밍 기사유형별, 등장인물별, 형식별 프레이밍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동성애 관련된 프레이밍은 총 6가지 속성으로 구분되었다. 국민일보는 동성애를 부정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성경교리’, ‘청소년위해’, ‘갈등/내분’ 프레이밍이 우세했고, 한겨레신문과 조선일보는 동성애를 인정하고 포용하는 긍정적 시선의 ‘사회통합’, ‘사회약자’ 프레이밍이 우세했다. 한겨레와 조선일보는 소수자에 대한 배려 교육의 필요성에서부터 동성애가 유전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과학적 근거까지 인용하며 동성애의 인정을 주장한 반면에 국민일보는 동성애가 성경교리에 어긋날 뿐 아니라 청소년의 성적 정체성 혼란 및 가족과 사회의 안정을 위협한다는 내용으로 동성애의 부정을 강조하였다. 그간의 연구 결과를 통해 동성애가 유전적 요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동성애자들은 여전히 유전적 요인을 강조하며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3개 신문사 모두 단순 정보 전달로 인해 독자가 실질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향후 미디어는 동성애에 대한 잠재적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것이며, 기독교 연구자들 또한 동성애에 대한 적극적 의견 개진을 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동성애, 성경교리, 프레이밍,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 이 논문은 2012년 11월 10일 명지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개최한 29회 기독교학문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이 논문을 읽고 유익한 조언을 해주신 세 분의 심사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국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석박사통합과정

*** 경희대학교 생물학과 교수

2013년 1월 8일 접수, 2014년 3월 18일 최종수정, 3월 20일 게재확정

I. 서론

동성애자의 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정확한 현황 파악은 어렵지만 미국의 경우, 9백만 명으로 추산되며(Gates, 2011: 2), 한국에도 이미 1998년에 11만 명 이상의 동성애자가 있을 것이라는 보고서(한국에이즈연맹, 1996)가 나온 바 있다¹⁾. 동성애는 종교적·사회적·정치적 특성에 따라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여러 집단에 의해 침해하게 대립되고 있는 사회 갈등으로, 기독교계에서 갈등의 정도가 상당하다. 전통적으로 기독교에서는 동성애를 종교적인 죄, 혹은 범죄로 여겨왔다. 동성애는 이 세상에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의 뜻에 어긋나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톨릭교회는 “동성애 성향은 객관적으로 무질서한 것으로 평가하고 동성 간의 성행위를 부도덕한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에 비해 개신교는 그 입장이 다양하여 동성애와 동성결혼, 심지어 동성애자의 목사 안수도 허용하는 교단들이 생겨났다. 이로 인해 교계 내 갈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동성애가 개인의 통제가 불가능한 유전에 의한 것이므로 “시민사회에서 용납되어야 하는 정상 행위”라고 강조하지만 교계를 비롯한 반(反)동성애 옹호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죄스럽고, 비정상적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동성애는 오랫동안 침묵에 갇힌 사회적 금기어였다. 그러나 동성애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 의제로 처음 등장한 것은 1990년대 초반으로, 1993년 12월 공식 결성된 동성애자 인권모임인 ‘초동회’를 시작으로 ‘친구사이’, ‘끼리끼리’, ‘서울대의 마음 001’ 등 인터넷을 활동공간으로 하는 동성애 지지 동호회가 만들어지면서부터다(서동진, 2005: 68-70). 이와 함께 성에 대한 진보적 논의가 비교적 자유로운 대학가에서 커밍아웃한 동성애자들의 모임이 만들어졌고,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커밍아웃이 힘든 청소년이나 지방에 거주하는 동성애자들의 연대가 형성되면서 사회적 금기로 여겨지던 동성애자들의 존재가 공개되기 시작했다.²⁾

1) 한국에이즈연맹은 1996년 세계보건기구의 지원으로 ‘한국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성애자의 수를 11만 명으로 추산했다(1998년 1월 9일자 연합뉴스 참고)

2) “동성애자들이 뭉친다”라는 제목으로 한국동성애자단체협의회(약칭, 한 대협)의 발대식에 관한 기사(1998년 6월 12일자 중앙일보 참고)

동성애자를 향한 사회적 태도는 학력이나 가치관, 경제적 소득과 상관없이 차별적이고, 타인과 어울려 사는데 문제가 있는 부적응자로 인식되었다(박수미·정기선, 2006: 12-21; Frost and Meyer, 2009). 특히 한국사회의 지배적 정서는 동성애에 대한 존재 자체에 대한 거부 및 동성애를 범죄, 사회악 등과 동일시하는 부정적 측면이 부각되어 왔는데, 이는 한국사회에 깊이 뿌리박힌 가부장적 유교문화의 주류가치관에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푸코(M. Foucault, 1976)는 성에 대한 사회적 담론은 성적인 욕구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당대의 권력가들이 주도하는 종교적, 도덕적 판단이나 의학 혹은 정신분석학 등에 의해 관리되며 그 결과 사회적 주도권을 쥔 지배세력의 성욕은 통제가능한 건강한 것으로, 권력과 지식을 갖지 못한 사회적 약자의 성욕은 병, 광기, 혹은 범죄의 영역으로 구분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한국사회의 집단적 거부감은 남성과 여성에게 요구하는 성역할의 구분이 뚜렷하고, 남녀의 혼인과 출산을 통해 남성 쪽의 가계가 이어지는 가부장제를 기본 구조와 가치로 삼고 있는 한국 사회의 특성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가부장제를 뒷받침하는 호주제 폐지와 성적지향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는 소수자 인권 등의 목소리가 커지며 점차 사회적으로 동성애를 용인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한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의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주제영역 내에서 장기적으로 형성되고, 유지되며, 교섭되는 이른바 사회 갈등에 대한 언론 보도는 뉴스 프레임이 무엇인지에 따라 보도 내용에 대한 수용자의 해석과 의견이 달라질 수 있다. 언론 보도는 본질적으로 언론사의 특정한 시각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프레임임을 통해 전달된다(Entman, 1993; Pan and Kosicki, 1993). 이를 통해 보도되는 사회적 현실은 언론이 지닌 현실에 대한 인식, 해석, 선택, 강조, 배제를 통해 이루어지는, 지속적으로 재해석된 결과물로 나타나게 된다(Gitlin, 1980). 특히 동성애처럼 사회 갈등으로 부각된 이슈는 프레임에 따라 특정 쟁점이 지닌 본래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부정적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해당 쟁점에 대한 수용자 인식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언론 보도에서 동성애 갈등과 같은 종교적·사회적·정치적 사안을 두고 어떠한 프레임을 하는가에 대한 여부는 수용자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인식 및 문제해결 방식에 대한 인식 차이를 갖게 한다.

슈메이커와 리즈(Shoemaker and Reese, 1996)는 사회 갈등을 보도하는 데 있어 논

의의 본질보다는 갈등 자체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양정혜(2001)는 의약분업 사태를 중심으로 한 프레임 연구에서 언론이 사태의 해결을 위한 노력보다는 정부, 국민, 의사 간 이분법적 대결과 갈등 구도를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조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현우와 이병관(2005)은 불안 원천 수거물 관리시설 유치 쟁점에 대한 프레임 연구에서 개발에 따른 경제적·재정적 결과, 안전성, 환경보호 등과 같은 쟁점 자체보다는 사회 갈등에 의한 혼란 등의 프레임이 주를 이루었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는 가부장적 한국사회의 오래된 금기어였던 동성애 사안에 대해 한국의 대표적인 보수, 진보, 기독교 신문이 동성애에 대해 어떻게 프레이밍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뉴스 프레임 분석 연구를 실시하였다.

동성애는 전 세계적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이슈로, 영역의 확장성, 갈등주체의 다양성이라는 점에서 특이점이 있다. 다시 말해, 동성애는 단순히 동성애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등 다방면으로 확장 가능한 영역이며, 갈등주체도 대부분의 연구에서 다루어진 것처럼 국가권력(정부)과 대항세력이 아닌 종교권력(교회)과 대항세력(동성애 단체,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선행 연구에서 살펴보았듯 사회 갈등을 주제로 다룬 연구들 대부분이 국내 문제에 국한된 이슈로서, 동성애처럼 국내를 포함한 세계적 갈등으로 확장된 이슈를 이론적 논의와 실증적 분석을 통해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 동안 종교는 사회과학 및 인문학, 그리고 미디어를 연구하는 커뮤니케이션 학문에서 가장 경시되어온 분야였다(Carey, 2002: 1). 미디어가 사회의 공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보도하면서 발전한 이래 종교를 개인의 사적 영역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교의 영향력이 점차 공적 영역에서 가시화되면서 언론을 통한 교계 보도가 이어지는 현 시점에서 동성애 갈등 연구는 교계를 포함한 다차원적인 프레임 제시 방식을 전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사례연구가 될 수 있다.

언론 분야에서 언론 보도의 내용 분석을 위한 대중적 접근 방법으로 사용되어 온 프레임 분석은 동성애처럼 교계를 포함한 다양한 계층에서 갈등하는 쟁점에 대한 미디어의 영향력을 분석할 수 있는 유용한 이론적·방법론적 틀을 제공해왔다(Hallahan, 1999). 이 연구는 동성애에 대한 뉴스 프레임 연구를 통해 언론 보도가 사회 갈등에 대해 어떠한 시각으로 해석하고 보도하는가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다. 또한 동성애를

둘러싼 여러 시각(종교 및 과학적 시각)들과 기독교적 윤리적 접근에 대한 프레임 분석을 통해 동성애에 대한 수용의 문제, 동성애자들의 치유와 변화에 대해 가져야 할 교회의 정체성과 방향에 대한 실질적 이해와 접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면을 고찰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동성애에 대한 종교 및 과학적 시각

(1) 종교적 시각

동성애에 대한 논쟁은 현재 교회의 긴장을 끊임없이 고조시키고 있다. 동성애를 바라보는 입장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이다. 기독교에서 동성애를 죄(sin)라고 보는 이유는 성경에 근거한다. 먼저, 창세기 19장 1-28절에 나오는 소돔사람들(sodomite)³⁾의 동성애와 하나님의 심판, 롯과 두 천사의 이야기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내용으로 가장 많이 인용된다. 성서 내용을 보면, “소돔 백성들이 무론 노소하고 사망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창세기 19:4)”,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네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 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창세기 19:5)”. 여기서 ‘상관’은 그들과 성관계를 하겠다는 것[(New Interational Vesion, NIV)- we can have sex with him; (King James Version, KJV) - we may know them carnally; Revised Standard Version (RSV) - we may know them]으로 해석 된다⁴⁾. 레위기에는 동성애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즉 남자와의 동침이 가증한 일이며, 죽어 마땅한 일이라고 하였다.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레위기 18:22),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3) 동성애를 지칭하는 소도미(sodomy)와 남색을 하는 자(sodomite)도 성서에서 유래한다.

4) 비평적 입장의 성경 해설자들도 소돔백성이 요구한 것이 동성애적 관계를 가지려 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이승구, 2010: 62). 그러나 곽분이 교수(한성신학대 기독교교육학과)는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로 번역된 원어 ‘yadha’ 라는 동사를 ‘안다’의 의미로 “우리가 그들과 알고 지내려고 한다.”로 번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레위기 20:3). 이 말씀을 통해, 동성 간 성관계를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일이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또 그들 죄를 죽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르치면서 결국 동성애를 금하고 있다. 이러한 가르침은 이스라엘 사회의 질서를 지키기 위함이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질서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바울도 명시적으로 “남색하는 자(NIV-homosexual offenders; KJV & RSV- sodomites)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으며(고린도전서 6:9-10, 디모데전서 1:10)”,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면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로마서 1:27)”라고 하였다. 이처럼 성서의 가르침은 분명하게 남색하는 것, 즉 동성애를 금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동성애는 분명히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것(디모데전서 1:11)”으로 바울은 밝히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 금지나 처벌에 관한 법이 폐지되는 상황 속에서 동성애를 종교적 죄로 규정한 성서를 재해석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어왔다. 콕분이(1996: 57-59)는 성서는 당시의 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하는 일부다처제(디모데전서 3:12)나 시형제결혼법(신 25:5-10)을 합법화한 반면에, 이혼과 재혼(디모데전서 3:2, 12, 딤후 1:6), 오나니즘(창세기 38:8)을 금지하였지만 이 모든 가르침이 모두 절대 진리가 아닌 것처럼 동성애도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헬미니악(Helminiak, 2000)은 성서가 오늘날 벌어지는 동성애 논의와 관련해 연관성 있는 단죄의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 예로 레위기 18장 22절을 성 윤리적 이유가 아닌 정절과 부정을 엄히 구별하는 종교적 이유로 남성 간 성 행위를 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우찬(2000: 168-169)은 동성애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동일한 부르심 아래 놓여 있다고 인식해야 하며, 그러므로 동성애자들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말로이(Malloy, 1982)는 광범위한 문헌조사와 심리학, 사회학적 이론을 고찰한 후에 사회구조와 동성애적 하위문화에서 진행된 동성애 생활은 기독교적 생활방식과는 화합할 수 없다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기독교 성서학자들과 윤리학자들 간에도 성경적 관점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동성애자를 위한 최초의 교회는 성공회에서 파생된 자유가톨릭교회(LCC: Liberal Catholic Church)로 1916년 호주 시드니에 설립되었고(Singer, 1994), 그후 1968년 미국

에서는 페리 목사가 이끄는 메트로폴리탄 커뮤니티 교회(MCC: Metropolitan Community Church)가 대표적이다. MCC는 동성애자를 위한 최대 규모의 비영리단체로 성장했다. 1972년 그리스도 연합교회(The United Church of Christ)는 1972년 게이 남성을 최초의 성직자로 임명했고, 1977년 1월 영국 성공회는 레즈비언을 최초로 성직자로 임명하였다(Singer, 1994). 또한 몇몇 교회에서 게이 커플들의 언약식이 거행되면서 교회 내 갈등이 생겨났다. 1992년에는 미국 내 규모가 가장 큰 남침례교회(SBC: The Southern Baptist Convention)가 동성애에 대한 태도가 관대하다는 명목으로 2개의 조합을 강제로 탈퇴시키기도 했다. 연합감리교회도 게이 생활양식이 기독교적 가르침과 공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며, 미국 침례교회 총평의회에서는 동성애 행위가 기독교 생활양식과 공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이러한 동성애 반대로 인해 MCC교회에서는 1971년부터 1985년 간 18개 교회에서 방화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Singer, 1994).

(2) 과학적 시각(유전적 결정론과 환경적 결정론)

동성애자들의 권리 찾기 운동이 사회의 한 목소리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는 동성애가 유전자에 의한 것인지 환경에 의한 것인지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 동성애가 유전자에 의한 것이라면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므로 동성애자를 도덕적으로 비난하기 어려운 반면에, 환경에 의한 것이라면 자신의 통제가 가능할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강한 사회적 저항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유정철, 2000).

지난 20년 동안 동성애자들은 자신들이 유전적으로 이성애자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대표적인 사람으로 르베이(LeVay)와 해머(Hamer)가 있다. 1991년에 영국의 신경과학자이자 동성애자인 르베이는 과학 저널 『사이언스(Science)』에 남성 동성애자들과 이성애들의 뇌 구조에 차이가 있음을 보고했다. 그는 에이즈로 죽은 19명의 동성애자를 포함해서 이성애 남자 16명, 여자 6명 등 41명의 뇌를 검시했는데, 시상하부의 간핵(Intstitial Nuclei of the Anterior Hypophalamus, INAH) 4개 중 3번째의 것, 즉 성욕을 관장하는 시상하부의 일부 부위의 크기가 이성애자와 동성애자의 것이 현저하게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었다. 그 후 동

성애자이자 분자생물학자인 해머 등(Hamer et al., 1993)과 르베이와 해머(Levay & Hamer, 1994)는 각각의 연구를 통해 성염색체에서 동성애자가 공유하고 있는 유전자의 위치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동성애자들은 이들의 연구를 동성애가 자신의 선택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유전적으로 결정된 것이라는 실증적 증거이므로, 자신들을 성적으로 문란하고 자연법칙을 어기는 비도덕적인 사람들로 몰아붙이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후속연구를 통해 동성애자들이 공유하는 유전자의 위치가 존재하지 않음이 속속 드러났다. 라이스 등(Rice et al., 1999)은 동성애 형제를 지닌 52명의 가계(家計)에서 르베이와 해머가 주장한 ‘동성애자들이 공유하는 유전자의 위치’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사이언스에 보고했고, 브라이언 등(Brian et al., 2005)도 2명 이상의 동성애 형제를 지닌 456명의 가계를 통한 연구결과, 동성애 성향과 유전자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르베이는 동성애자나 양성애자들의 가계를 분석한 자신의 연구를 인용하면서 동성애자들의 성적인 취향은 유전적 요인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그것이 환경적 유전인지, 생물학적 유전인지는 명확히 밝혀내지 못했다(Byne, 1994: 53-54). 사실 르베이는 자신이 다니던 영국의 사립학교의 남자기숙사가 동성애자가 되기 좋은 환경을 제공했다며, 성장과정에서 어린 시절의 교육 환경은 동성애자들을 양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고백한 바 있고, 르베이의 아버지 또한 자신의 아들이 제작에 참여한 한 TV 다큐멘터리에 출연해서 자신의 가계에는 동성애자가 없는데 어떻게 자신이 동성애자가 되었는지 알 수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동성애가 유전적 요인이라는 르베이의 주장과는 분명하게 어긋난다.

동성애자들은 동성애가 에이즈(AIDS)를 유발한다는 사회의 인식은 동성애에 대한 잘못된 선입관이고 편견이라고 항변하며 자신들의 행복추구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동성애 단체들이 현행 고등학교 체육교과서 내용에 동성애가 에이즈를 유발한다는 등 학생들에게 동성애에 대한 편견과 혐오증을 조장하고 동성애자들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⁵⁾고 교육부와 법적 투쟁을

5) 2012년 8월 22일 KBS뉴스는 “에이즈 환자는 문란? ‘편견 교과서 황당’이라는 제목으로 고등학교 체육 교과서에 에이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방송했다. 즉 “에이즈예방의 기본 수칙이 ‘정조’이고, ‘믿을 수 있는 한 사람과의 성관계를 해야 안전하다’며 에이즈 환자는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오해를 줄 수도 있도록 서술하고 있어, 현실에서 동떨어진 교과서 내용에 일선 교사들이 당황스러워한다는 내용이다.

별였으며,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다음 번 교과서 개편 때 문제가 된 내용에 대해 삭제나 수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성적 문란은 에이즈와 상관이 있다는 것이다. 평생 한 명의 섹스 파트너를 가진 사람보다 여러 파트너와 문란한 성생활을 한 사람들이 에이즈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다(Figueroa et al., 2008)는 사실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런 추세로 동성애자들의 투쟁이 가속화되면 곧 우리나라에서도 동성애자들끼리의 결혼을 합법화하는데 대한 찬반 논쟁이 불붙을 것이다. 이미 네덜란드와 노르웨이, 벨기에, 스페인,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는 동성 간 결혼이 합법화되었으며 덴마크도 1986년부터 동성 커플들의 재산상속까지 인정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도 동성 부부도 이성 부부와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기로 한 ‘사회연대협약(PACS)’이 통과되었고, 미국에서는 6개 주(매사추세츠, 코네티컷, 버몬트, 뉴햄프셔, 아이오와, 뉴욕⁶⁾)에서 동성 커플을 부부로 인정해 이제 동성부부도 의료보험이나 세금감면 등 각종 사회보장에 있어 이성부부와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었으며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권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경계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각국의 보수주의자들과 기독교와 이슬람교 등 종교계는 동성애를 인정하게 되면 “남녀 성 역할” 교육에 심각한 장애를 가져온다며 동성애 금지를 계속 주장하고 있다. 2012년 7월 미국장로교(PCUSA) 총회에 상정되었던 ‘결혼 정의 변경’ 안건⁷⁾이 반대 338표, 찬성 308표의 근소한 차이로 부결되면서, 2000년에 통과시켰던 신자들의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교회규약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법을 이 땅에 세우기보다 동성애자들의 비위를 맞추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일부 사람들은 동물의 세계에서 동성애는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내용이다. 동물의 세계에서 동성애는 매우 드물게 발견된다. 관찰되는 경우는 아주 비정상적인 환경에 국한된다. 예를 들어, 검은머리물떼새(Oystercatcher)는 원래 전형적인 일부일처제인 새로, 둘 중 어느 한 쪽이 죽을 때까지 평생 부부관계가 지속된다. 이 새는 수명이 길고, 이전에 사용했던 번식지를 매년 재

6) 2011년 6월 24일 평등결혼법안이 통과되었다. 뉴욕 주 상원은 동성애와 낙태를 반대하며 전통적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공화당이 다수당이어서 법안 통과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공화당에 고액을 내는 주요 선거자금 기부자들의 영향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다.

7) 결혼의 정의를 ‘남녀 간의 결합에서 두 사람의 결합’으로 변경하자는 내용이다.

사용하기 때문에 번식지와 배우자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매우 심하다. 이미 자신의 세력권을 확보한 암컷과 침입자인 암컷 사이에는 폭력적인 충돌이 자주 발생해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 암컷 간 싸움이 지속되기도 한다. 그러나 1998년 영국의 과학 잡지 『네이처(Nature)』에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다. 10년간 검은머리물떼새를 연구하던 네덜란드의 그로닝겐 대학의 조류학자들(Heg and van Treuren, 1998)은 서로 죽도록 싸우던 검은머리물떼새의 암컷들이 갑자기 싸움을 멈추고 서로의 관심을 끌려는 신호를 보내며 마치 잉꼬새 부부처럼 행동하며 교미를 시도하는 모습을 관찰한 것이다. 이에 연구진들은 검은머리물떼새에서 발견되는 동성애에 대해 수명이 40년 정도인 검은머리물떼새는 짝짓기가 어려운 환경이 지속될 경우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드물게 동성끼리 교미를 시도하는 행동을 보인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것은 동성애가 유전적 요인이 아닌 환경적 요인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연구결과라 할 수 있다.

원인 유전자를 밝히는 생물학 연구는 정치적 함의를 갖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논란이 된다. 아직 동성애가 유전적 요인으로 결정되는지 환경적 요인으로 결정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어쩌면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모두가 동성애를 유발시킬지 모른다. 동성애자들은 유전적 치료를 통해 동성애자를 치료하는 것도 반대하는데, 그들에게 태어난 그대로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창조세계의 질서가 위협받는 시대에 살고 있다.

2. 동성애 관련 사회 갈등에 대한 미디어 보도

(1) 프레임의 정의와 구성

프레임(Framing)은 커뮤니케이션을 비롯하여 사회학, 정치학 등의 연구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는 중요한 개념이다. 최초로 프레임의 연구방법론적 가치를 제시한 기자 출신인 고프만(Goffman, 1974)과 베이트슨(Bateson, 1972)은 사회학과 사회인류학적 관점에서 프레임을 기술했다. 그 후 미디어 및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이 사회학적 시각에 무게를 둔 접근법을 연구한 결과 오늘날의 프레임 접근법, 즉 이슈의 구성, 담론구조, 의미구조가 어떻게 구성되고, 발전되었는지를 밝히는 새로운 관점의 프레임이 등장하게 되었다.

고프만(Goffman, 1974)은 프레임링을 개인들이 실제 경험이나 사건을 인지하고 규명하며 적당한 위치에 배치시키는 주체적 기능을 담당하는 ‘해석의 스키마타(schemata of interpretation)’로 정의하며, 일반 상식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응용되는지, 해석의 스키마타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었다. 프레임링을 효과나 결과 중심의 체계로 정의한 엔트만(Entman, 1993)은 현실에서 선택한 특정 부분을 커뮤니케이션 텍스트에서 좀 더 현저하게 만드는 기능을 프레임링이라고 하며, 특정문제에 대한 정의, 원인 해석, 도덕적 평가, 해결 방안의 제시 등의 방법이 이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탱거트 등(Tankard et al., 1991)도 뉴스 내용을 구성하는 중심 요소로 상황을 전달하고 이슈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이를 위해 선택, 강조, 배제, 윤색 등의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고 했고, 이엔가(Iyengar, 1991)는 프레임링이 문제를 제시하거나 명시하는 데 있어 미묘한 변화를 가져오는 근간이 된다고 했으며, 홀(Hall, 1982)은 프레임링은 세부 구성 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이 궁극적으로 핵심 주제와의 관련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하나의 사건과 연결되는 모든 것들이 관련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프레임링은 그 연관성을 결정하는 도구라고 정의한 바 있다. 즉 프레임링은 우선적으로 이슈를 설정하고, 관련 사건들을 수용자에게 이해시키며, 어떤 정보가 유관한지를 정의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사건을 정밀하게 관찰하여 정보를 세분화시킨 후, 중점 이슈와의 연관성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위현장에서 경찰과 시위대의 갈등 상황만을 프레임으로 설정한다면 시위대가 요구하는 주장은 프레임된 보도에 포함되지 못할 것이다. 프레임과 관련된 정보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기틀린(Gitlin, 1980)은 프레임에는 인지, 해석, 강조, 선택과 제외 등의 요소들이 지속적으로 나열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의 규칙적인 배열로 담론이 구성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즉 프레임된 사건 보도는 인지, 해석, 표출, 선택과 배제라는 관문을 통과한 최종 결과물인 것이다. 기사 작성 시 정보는 설정된 프레임에 맞게 각각의 정보 단위로 세분화되어 조직력을 갖추게 되는데, 프레임링이 힘을 갖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정보를 단순히 포함 또는 배제시키는 것을 넘어서 실체가 없는 현실까지 하

8) 스키마(schema)는 텍스트의 생산 및 수용의 기초가 되는 배경지식으로, 수용자는 어떤 새로운 텍스트를 접할 때 이미 기억 속에 존재하고 있는 정보와 관련지어 이해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동성애의 원인이 유전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정보에 노출된 수용자는 동성애를 보다 수용적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를 스키마타(schemata)라고 한다.

나의 의미단위로 창출해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프레임은 역동적인 정보 분석을 통해 새로운 의미구조를 탄생시키는 도구라고 말할 수 있다.

(2) 사회 갈등 분석과 프레임 유형

미디어는 갈등과 관련한 사회문제에 대한 집단적 인식 및 반응을 형성하게 하고, 다양한 사회현실의 경험들을 알리는 중요한 공중의 정보 소스 역할을 한다(Fejes and Petrich, 1993). 우리 사회가 당면한 사회적 과제 중 하나는 현재화된 사회 갈등의 합리적 해결에 있다. 사회적 관계가 발달하고 다원화될수록 사회 갈등은 정치뿐 아니라 여성, 환경, 소수자 인권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복합적으로 표출된다. 사회 갈등은 담론 형성을 위해 공중으로부터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투쟁이다(양정혜, 2001). 왜냐하면 갈등 상황은 자연 발생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인식 되는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유전적 요인과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환경적 요인이 그것이다. 동일한 문제를 각기 다른 시각에서 진단하고 처방하는 집단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정당하고, 합법적인 지식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경쟁하는데, 이때 언론은 갈등 당사자들의 정당성을 획득해주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언론의 관심 없이는 갈등 이슈가 공중의 담론 영역에 포함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회 갈등에 대한 언론 보도를 살펴보면 대개 논의가 뉴스를 통해 제공되는 갈등의 세계가 실제와는 달리 편향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장용호, 1988). 언론은 공중에게 어떤 쟁점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강하게 부각시키고, 또 다른 어떤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제시해 줄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Gitlin, 1980). 다시 말해 언론은 갈등 개입자를 호의적으로 조명할 수도 있고, 일탈적 측면을 강조해 주변화시킬 수 있다(Best, 1995).

지난 20여 년간 언론을 통해 보도된 사회 이슈들에 대한 갈등적 쟁점 상황과 공중의 해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밝히기 위한 프레임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국내외적으로 상당한 이론적 축적을 이루었다. 갈등보도를 연구한 선행 연구의 프레임 유형은 <표1>과 같다.

〈표1〉 갈등보도에 대한 선행 연구의 프레임 유형

	연구자	프레임 유형
국 외	Iyenger(1991)	일화프레임, 주제프레임
	Price et al.(1997)	인간적 흥미프레임, 갈등프레임, 개인프레임
	Valkenburg et al(1999)	책임귀인프레임, 인간적 흥미프레임, 갈등프레임, 도덕성프레임, 경제결과프레임
	Semetko & Valkenburg(2000)	책임귀인프레임, 인간적 흥미프레임, 갈등프레임, 도덕성프레임, 경제적 결과프레임
	Chyi&McCombs(2004)	시간프레임(과거, 현재, 미래), 공간적프레임(사회, 지역사회, 개인)
	Nisbet(2010)	경제계획책임프레임, 빈곤동정프레임
국 내	이준용(2001)	정부통제프레임, 자율시장프레임, 시장개혁프레임
	양정혜(2001)	도덕성프레임, 내분프레임, 비협조프레임, 무능한 정부프레임, 노력하는 정부프레임, 원인 제공자프레임, 질서유지프레임, 대응자프레임, 해결자프레임, 절차프레임, 국민불편프레임, 고지 프레임, 기타
	강내원(2002)	정책의 비효율성/무능프레임, 개발프레임, 환경보호프레임, 국민부담프레임, 사업의 경제성프레임, 사회적 합의프레임
	김선남(2002)	법/질서프레임, 도덕성프레임, 반자본주의프레임, 책임프레임
	박경숙(2002)	권위적 정책실행프레임, 대항프레임, 민주적 합의프레임, 도덕성프레임, 인간적 흥미프레임, 경제적 결과 프레임
	나미수(2004)	지역발전프레임, 폭력성 강조프레임, 도덕성프레임, 민주적 합의프레임
	김훈순(2004)	일화 중심적프레임, 주제 중심적프레임
	김원용 · 이동훈(2005)	대립/분열/갈등프레임, 음모/조작프레임, 도덕성프레임, 개혁/개선프레임, 폭로/고발프레임, 책임추궁프레임
	정의철(2008)	지원감동프레임, 사건사고프레임, 인권프레임, 교육예방프레임, 위기프레임, 교육예방프레임, 생의학프레임, 사회경제역사프레임, 정책프레임
	양정혜(2010)	감시와 처벌 강화프레임, 검찰, 경찰 비판프레임, 사이코패스 범인프레임, 원인 규명 프레임의 부재, 무력한 피해자프레임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및 가설

이 연구는 첫째, 언론이 ‘동성애’라는 사회 갈등의 관점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인용하고 있는 주장과 제안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했다. 만약 다양한 시각과 주장들이 보도되고 있다면 동성애를 둘러싼 복잡한 사회 갈등이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제한된 수의 시각과 주장들만이 지속적으로 사용된다면 동성애를 둘러싼 사회 갈등에 대해 비교적 간단한 이해관계 구조에서 상반된 입장이 대립하고 있거나 혹은 언론이 최대한 소극적 입장을 보이는 것은 아닌지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동성애에 대한 입장의 다양성은 언론보도 프레임 과정에서 언론사의 이념적 차이에 의한 가능성이 높다. 둘째, 보도에 자주 언급되는 등장주체가 어느 계층인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등장주체가 신앙심이 깊은 교계 관계자라면 기사보도는 동성애를 부정하는 논조로 흐를 것이고, 반대로 등장주체가 동성애 인권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관계자라면 기사보도는 동성애를 긍정하는 논조로 흐를 것이기 때문이다. 즉 신문사의 이념적 차이로 갈등 개입자를 호의적으로 조명할 수도 있고, 일탈적 측면을 강조해 주변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인지적 프레임 구성인 동성애와 관련된 언론보도가 주로 어떤 형식상 프레임을 사용하는지 확인했다. 선행 연구에서 이엔가(Iyenger, 1991)는 일화프레임은 사태의 책임을 특정 개인에게 돌리는 역할을 하고, 주제프레임은 개인이 아닌 사회에게 책임을 묻는 식으로 전개되는데, 프레임의 차이가 수용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연구로 알려져 있다. 김선남(2002: 58)는 매매춘 보도가 주제프레임인 경우에는 심층적으로 다루어지지만 일화프레임인 경우에는 개인적이고, 일시적인 사건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동성애 보도 시 두 가지 방식(일화/주제 프레임)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형식상 어떤 프레임을 사용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따라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동성애를 보도한 기사에서 사용한 프레임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동성애를 보도하는 기사의 프레임은 일화프레임인가, 주제프레임인가?

2. 분석대상

동성애를 보도한 기사에서 주로 사용한 프레임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조선일보』, 『국민일보』, 『한겨레』를 선정했다. 3개 신문을 선정한 이유는 조선일보와 한겨레는 보수와 진보라는 상반된 이념을 지니고 있는 대표적인 신문으로서 동성애와 관련해서도 상이한 입장을 보일 것으로 가정하여 선택하였다. 국민일보는 창간부터 기독교 이념을 바탕으로 운영되어 온 만큼 성경교리에 어긋나는 동성애 보도에 있어 다른 신문들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선택하였다. 『국민일보』, 『한겨레』의 기사는 뉴스기사 데이터베이스인 카인즈(KINDS: Korea Integrated News Database System)를 통해 확보했고, 『조선일보』의 기사는 조선일보 홈페이지를 통해 확보했다.

총 분석 시기는 카인즈에서 분석 가능한 1990년부터 2012년 7월 31일까지로 선정했고, 검색범위는 기사 제목에 ‘동성애’라는 주제어를 통해 일차적으로 추출하였다. 그 결과 『조선일보』는 1995년 10월에 1건, 『한겨레』는 1995년 6월에 1건, 『국민일보』는 1990년 3월에 1건을 시작으로 보도가 시작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 후 분석자가 기사를 하나씩 읽어가며 프레임 분석에 적합한 분석대상 기사를 대상으로 기사의 유형, 형식 프레임, 내용 프레임, 등장주체, 기사 건수 등을 분석했다.

사건에 대한 인식적 요소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기사유형의 중요성이 제기된다. 기사 작성에 있어서 스트레이트는 단순정보를 전달하는 수준에 그치는 반면에 칼럼 및 논단은 사건을 진단하고 문제점과 갈등에 대한 진단 및 전망 등의 의견을 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이준웅(2005)은 통일 및 북한 관련한 뉴스 프레임 연구에서 사실만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동성애는 전 세계가 갈등을 겪고 있는 주요한 이슈 중 하나로서, 대부분 스트레이트 유형으로 전달되는 외신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스트레이트 유형을 배제한 채 기사를 분석하는 것은 언론사간 이념의 차이를 놓치고 갈 수 있는 제한점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기사의 유형을 스트레이트와 칼럼 및 논단, 기획연재, 통계 설문조사, 인터뷰, 사설로 구분해 분석했고, 내용 프레임은 성경교리, 갈등과 내분, 사회통합, 소수자인권, 사회윤리 및 청소년 정서, 과학 프레임 등 6개로 나누었고, 등장주체는 교계, 학생(중고등/대학생), 예술관련 인사, 정부관련 인사, 전문가 집단, 시민단체, 동성애인권단체로 나누었다. 정부관련 인사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폭넓은 의미에서의 정치인들로 구성했고, 전문가 집단은 교수, 학자, 의사 등을 포함시켰고, 예술

관련 인사에는 작가, 배우를 비롯해 동성애를 주제로 한 작품을 포함시켰다. 또한 인권 단체에는 동성애자를 포함한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로 구성했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시민 단체에는 일반인을 포함한 보수 성향 시민단체로 포함했다. 마지막으로 프레임 형식이 일화프레임인지, 주제프레임인지로 구분했다. <표2>에서처럼, 프레임 분석에 적합한 분석대상 기사는 조선일보 183건, 한겨레 153건, 국민일보 125건으로 총 461건이었다.

일차적으로 연구자에 의해 전체 기사에 대한 프레임 분석이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마지막으로 언론정보학부 대학원생 2명에게 연구자의 연구방법을 완전히 교육시켜 동일하게 전체 분석대상의 20%를 코딩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다른 코더에게는 연구자가 본 연구의 목적과 분석대상이 무엇이고,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지를 담은 코더 교육을 2주에 걸쳐 3차례 실시했고, 코딩용지를 전달했다. 이에 코더 간 신뢰도 측정 결과 단순 일치도는 86%로 측정되었다. 이 가운데 우연에 의한 일치율을 제거한 스코트 Pi값은 0.68로 측정되었다.

<표2> 프레임 분석에 사용된 신문사별 기사 건수 (1990.01.01-2012.07.31)

언론사	조선일보	한겨레	국민일보	합계
기사 건수	183(39.7%)	153(33.2%)	125(27.1%)	461(100%)

3. 분석 프레임

이 연구에서는 개방적 관점을 가지고 기사를 분석하는 귀납적 접근방법을 사용하여, 일차적으로 동성애를 다룬 기사에서 논의의 중심은 무엇이고, 주장하는 내용은 어떤 것인지를 기사의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 분석을 시작했다. 그 결과 ‘동성애 인권’, ‘성경의 진리를 거스르는 죄악’, ‘교계 간 갈등’, ‘인권단체-교계 간 분열’, ‘동성애 성직자’, ‘커밍아웃’, ‘남만성 극대화’, ‘사랑지상주의’, ‘정신질환’, ‘성스캔들’, ‘선천적 취향’ ‘동성애 관련법 입법 및 폐지’, ‘에이즈 확산’, ‘군 복무’, ‘불온한 코드 확산’ ‘청소년의 정서에 부정적 영향’ ‘유전적 측면의 접근’, ‘사회적 변화의 시각’ ‘교리 해석의 상반된 시각’, ‘불건전한 성문화’ 등 총 25개의 프레임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같은 프레임은 명칭이나 속성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개별 프레임들 간의 구분이 모호할 수밖에 없

었다. 따라서 객관적인 분석틀을 도출하기 위해 가치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최종적으로 6개 차원의 프레임틀을 도출하였다.

(1) 성경교리 프레임

갈등과 관련한 사건이나 문제 혹은 쟁점을 종교적 차원, 특히 성경교리에 연결시켜, 동성애를 도덕성과 윤리성을 무너뜨리고, 창조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바라보는 프레임이다.

(2) 갈등/내분 프레임

교계에서 표출된 동성애 교리 해석의 상반된 시각을 언급하고 그 결과 야기된 대립과 갈등-성공회 성직자들의 동성애 포용 여부 등-을 다룬 프레임이다.

(3) 청소년 위해(endanger) 프레임

동성애를 사회윤리 및 청소년 정서에 해로운 영향을 주는 불온한 코드로 언급하며, 동성애를 정상사회에 대한 위협임을 주장하는 프레임이다.

(4) 사회통합 프레임

동성애자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 동성애자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다문화주의 가치를 언급한 프레임이다.

(5) 소수자 인권 프레임

이성애 규범에 따라 차별받는 성적 소수자이자 사회적 약자의 시선으로, 군대 내 차별금지 등 사회적 약자의 차별을 언급한 프레임이다.

(6) 과학 프레임

동성애를 유전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동성애자와 이성애자가 생리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언급하며 선천적 요인으로 언급한 프레임이다.

〈표3〉 동성애 관련 프레임 속성 구분 및 설명

	속 성	설 명
부 정 적 시 선	성경교리 프레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성애는 자연법에 벗어나고, 이성에 어긋나며, 성경교리와 맞지 않는 철학적·신학적 근거로 무질서와 부도덕으로 결과로 규정 • 동성애를 범죄·사회악과 동일시하는 존재/교회 안에서 치유
	갈등/내분 프레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독교 내 입장이 다양하여 동성애와 동성결혼, 동성애자의 목사 안수의 허용 여부에 대해 분열하는 등 교계의 대립과 갈등 관계 부각 • 성공회 동성애자 포용 여부 논란 가열 • 동성애에 대한 교리 해석의 상반된 시각
	청소년 위해 프레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윤리 및 청소년의 정서에 해로운 영향 • 불건전한 성문화-후천성면역결핍증 원인, 에이즈환자 수의 빠른 증가 • 동성애자는 사회·윤리적으로 용납되지 못하는 불온한 코드 확산의 주범
긍 정 적 시 선	사회통합 프레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드라마, 영화, 만화 등)를 통해 동성애의 낭만적 정서 반영 • 동성애자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다문화주의 가치 보도 • 개인의 성적취향, 소비, 라이프스타일 등 소수의 성 정체성 수용 등 특수한 삶의 양식으로 인식 • 동성결혼은 개인의 자유이므로 이를 국가가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인권을 침해하는 것
	소수자 인권 프레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적 소수자이자 사회적 약자의 시선-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 차별 주장 • 고용차별, 군대 내 차별 금지 등 사회적 차별에 대한 정치사회적 의미
	과학 프레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성애를 유전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동성애자와 이성애자가 생리적으로 차이가 있음 • 동성애자의 타고난 성도착 증세 및 성적 전환치료의 유효성 • 동물들의 동성애

IV. 연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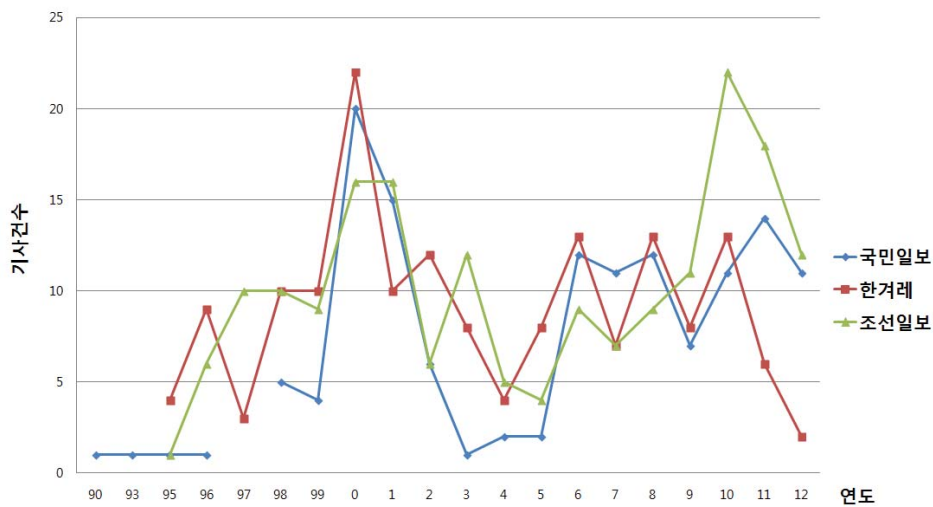
1. 동성애 보도에 따른 신문사별 프레임 분석 결과

(1) 동성애 보도 건수 및 기사 유형 분석 결과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오랫동안 침묵에 갇힌 사회적 금기어였다. 그러나 성에 대한 개방적인 사회분위기와 더불어 다양한 성담론이 자연스럽게 논의되면서 우리 사회는 동성애에 대해 점차 관용하는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그림 1]의 동성애 관련 기사건수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2000년과 2010년에는

기사 건수가 확연히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2000년 연예인 홍석천의 커밍아웃과 2010년 지상파 방송으로는 최초로 동성애 커플의 사랑을 다룬 김수현의 <인생은 아름다워>(SBS 주말 드라마, 2010. 3. 20. 1회 방송)가 원인으로 해석된다.

[그림 1] 연도별 신문기사 기사건수(1990.01~2012.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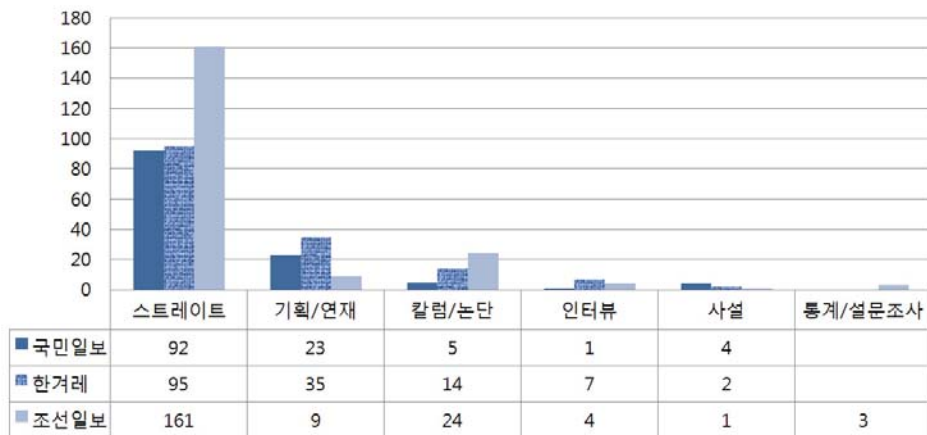


주말드라마는 일상성과 보수성을 유지하면서 가회만사성의 가치를 담아내는 장르이므로 사실상 동성애처럼 도덕적 통념을 크게 벗어난 소재를 다루기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 속에서 <인생은 아름다워>는 동성애가 유별나고 비정상적인 개인의 몫이 아닌 가족 모두가 나누는 문제로서, 동성애자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드라마 속 가족의 화목함을 위한 유일한 길임을 유도했다. 이로써 시청자는 동성애자를 보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서서히 해소되면서 극중 동성애자 가족의 존재를 자연스럽게 용인하게 될 수 있다. 홍석천의 커밍아웃 이후 국민일보의 연평균 기사건수는 2.1개였으나 2000년에는 20개로 약 95%의 증가율을 보였다. <인생은 아름다워>는 드라마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며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시청거부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이런 과장으로 2010년 조선일보는 기사건수가 전년대비 100% 증가했다.

[그림 2]는 신문사 구분에 따른 기사 유형을 분석한 결과로, 총 461건의 기사 중 348건(75.5%)이 스트레이트 기사였으며, 그 다음으로 기획/연재 67건(14.5%), 칼럼 및

논단 24건(5.2%), 인터뷰 12건(2.6%), 사설 7건(1.5%), 통계/설문조사 3건(0.7%) 순으로 나타났다. 각 신문사별로 살펴보면, 국민일보는 전체 125건의 기사 중 92건(73.6%)이 스트레이트 기사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뒤를 이어 기획/연재 23건(18.4%), 칼럼 및 논단 5건(4%), 사설 4건(3.2%), 인터뷰 1건(0.8%) 순으로 나타났다. 한겨레도 총 153건의 기사 중 스트레이트 기사가 95건(62.1%)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기획/연재 35건(22.9%), 칼럼 및 논단 14건(9.2%), 인터뷰 7건(4.6%), 사설 2건(1.3%) 순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도 마찬가지로 총 183건의 기사 중 스트레이트 기사가 161건(88%)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칼럼 및 논단 24건(13.1%), 기획/연재가 9건(4.9%), 인터뷰 4건(2.2%), 통계/설문조사 3건(1.6%), 사설 1건(0.5%)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분석결과는 동성애를 보도한 기사에 있어서 국민일보, 한겨레, 조선일보 모두 기사유형이 골고루 분포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스트레이트 기사에 치우쳐 있을 뿐 언론사간 보도성향 차이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칼럼 및 논단, 기획 연재, 사설 등 보도량의 빈도 차이는 거의 없었다. 특히 조선일보는 분석에 사용된 기사건수는 183건으로 한겨레 153개, 국민일보 125개 보다 많았으나 스트레이트 기사가 88%로 단순정보를 전달하는 데 그쳤다. 이것은 동성애가 사회적 논의의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되지 못한 이유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2] 신문사별 기사유형



(2) 신문사별 프레임 분석 결과: 강화 프레임과 약화 프레임을 중심으로

<표4>는 동성애 보도와 관련해 신문사 구분에 따른 프레임 유형의 차이를 Two-way Chi-square로 분석한 결과이다. 총 409건의 기사 중 186건(45.5%)이 ‘사회통합’ 프레임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그 뒤를 이어 ‘사회약자’ 프레임 67건(16.4%), ‘청소년 위해’ 프레임 57건(13.9%), ‘성경교리’ 프레임 56건(13.7%), ‘갈등/내분’ 프레임 34건(8.3%), ‘과학’ 프레임 9건(2.2%) 순으로 나타났다. 각 신문사별로 드러난 프레임 유형을 살펴보면, 국민일보는 ‘성경교리’ 프레임이 44건(38.4%)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청소년 위해’ 프레임 28건(24.3%), ‘갈등/내분’ 프레임 22건(19.1%), ‘사회통합’ 프레임 13건(11.3%), ‘과학’ 프레임 1건(0.9%) 순을 나타냈고, 한겨레는 ‘사회통합’ 프레임이 87건(62.6%)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사회약자’ 프레임 34건(24.5%), ‘청소년 위해’ 프레임 10건(7.2%), ‘성경교리’ 프레임 4건(2.9%), ‘갈등/내분’ 프레임과 ‘과학’ 프레임이 각각 2건(1.4%)를 차지했다. 조선일보도 한겨레와 마찬가지로 ‘사회통합’ 프레임이 86건(55.5%)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사회약자’ 프레임 26건(16.8%), ‘청소년 위해’ 프레임 19건(12.3%), ‘갈등/내분’ 프레임 10건(6.5%), ‘성경교리’ 프레임 8건(5.2%), ‘과학’ 프레임 6건(3.9%)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Two-way Chi-square값이 167.48($p < .05$)로 나타나, 신문사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민일보는 동성애를 청소년의 성적 정체성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근거에서부터 가족과 사회의 안정을 위협한다는 근거까지 사회윤리 및 청소년 정서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인 시선, 즉 ‘성경교리’, ‘청소년 위해’, ‘갈등/내분’ 프레임이 우세했고, 한겨레와 조선일보는 소수자에 대한 배려 교육의 필요성에서부터 동성애가 선천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의학적 근거까지 동성애를 인정하고 포용하는 긍정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회통합’과 ‘사회약자’ 프레임이 우세했다. 흥미로운 것은 <표5>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국민일보를 제외하고, 이념의 양 극단에 있는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프레임이 방향이 일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정치를 포함한 사회갈등 이슈를 보도하는 진보와 보수 언론 프레임을 연구한 결과와는 차별적임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문제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으나 ‘선정성 프레임’ 빈도 또한 조사하였다. 선정성 프레임은 사회현상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며 폭력이나 섹스와 관련한 용어를 사용해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즉 동성애자와 연관된 성범죄

기사, 셀레브리티들의 동성애 스캔들 보도 기사 시 자극적이고, 원색적이고, 도발적인 언어로 기사를 작성하는 경우로, 예를 들어 “키스하고 옷통을 벗으며 가슴을 애무하는 등”, “빈 교실에서 발가벗고”, “알몸 상태에서” 등 팩트나 주제와는 무관하게 불필요하게 독자의 관음증을 유발하는 기사 작성을 말한다. <표6>은 신문사별로 선정 프레임을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조선일보가 35건(19.1%)으로 가장 빈도가 높았고, 국민일보 4건(3.2%), 한겨레 3건(2.0%) 순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조선일보는 동성애를 신문사의 이념적 잣대보다는 선정적 기사 작성으로 독자의 관심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4> 동성애 관련 신문사별 프레임 유형 (n=409)

		프레임						합계	
		성경 교리	갈등/내분	사회 통합	사회 약자	청소년 위해	과학		
신문사	국민일보	44 38.3% 10.8%	22 19.1% 5.4%	13 11.3% 3.2%	7 6.1% 1.7%	28 24.3% 6.8%	1 .9% .2%	115 100.0% 28.1%	Chi-square =167.48*
	한겨레	4 2.9% 1.0%	2 1.4% .5%	87 62.6% 21.3%	34 24.5% 8.3%	10 7.2% 2.4%	2 1.4% .5%	139 100.0% 34.0%	
	조선일보	8 5.2% 2.0%	10 6.5% 2.4%	86 55.5% 21.0%	26 16.8% 6.4%	19 12.3% 4.6%	6 3.9% 1.5%	155 100.0% 37.9%	
합계	56 13.7%	34 8.3%	186 45.5%	67 16.4%	57 13.9%	9 2.2%	409 100.0%		

Note: d.f.=10, p<.05*

<표5> 동성애 관련 신문사별 긍정/부정 프레임 빈도 (n=409)

	국민일보	한겨레	조선일보	합계
긍정적	21(18.3%)	123(88.5%)	118(76.1%)	262(64.1%)
부정적	94(81.7%)	16(11.5%)	37(23.9%)	147(35.9%)
합계	115(100%)	139(100%)	155(100%)	409(100%)

〈표6〉 동성애 관련 신문사별 선정성 프레임 빈도 (n=461)

	국민일보	한겨레	조선일보	합계
선정성 프레임	4(3.2%)	3(2.0%)	35(19.1%)	42(9.1%)

(3) 신문사별 등장주체 분석 결과

〈표7〉은 동성애 보도와 관련해 신문사 구분에 따른 등장주체 유형의 차이를 Two-way Chi-square로 분석한 결과이다. 총 461건의 기사 중 101건(22.1%)가 ‘인권단체’였고, 그 뒤를 이어 ‘정치인’ 97건(21.3%), ‘예술관련 인사’ 89건(19.5%), ‘교계’ 85건(18.6%), ‘시민단체’ 35건(7.7%), ‘전문가 집단’ 27건(5.9%)이었다. 각 언론사별로 드러난 등장주체 유형을 살펴보면, 국민일보는 ‘교계’가 62건(50.0%)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그 뒤를 이어 ‘정치인’이 18건(14.5%), ‘예술관련 인사’ 11건(8.9%), ‘전문가 집단’과 ‘시민단체’가 각각 10건(8.1%), ‘학생’ 4건(9%) 순을 나타냈다. 기독교 이념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국민일보의 경우 성경교리를 가장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목사 등의 교계 인사를 등장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겨레는 동성애자를 포함한 진보 성향의 ‘인권단체’가 58건(38.4%)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그 뒤를 이어 ‘예술관련 인사’ 32건(21.2%), ‘정치인’ 30건(19.9%), ‘학생’ 11건(7.3%), ‘전문가집단’과 ‘시민단체’가 동일하게 7건(4.6%), ‘교계’ 6건(4.0%)를 차지했다. 통합과 변화의 목소리를 내는 진보 성향의 한겨레는 동성애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의 정립을 전파시키기 위해 특히 동성애자들의 솔직하고 힘겨운 사연을 담은 기사를 많이 노출시켰다. 조선일보는 정치인들의 동성애 스캔들을 비롯해, 각종 선거 때마다 동성애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정치인’이 49건(27.1%)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근소한 차이로 ‘예술관련 인사’가 46건(25.4%)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인권단체’ 34건(18.8%), ‘시민단체’ 18건(9.9%), ‘교계’ 17건(9.4%), ‘전문가 집단’ 10건(5.5%), ‘학생’ 7건(3.9%) 순으로 나타났다. 안정과 안보를 요구하는 보수 성향의 조선일보는 동성애에 대한 신문사의 이념 표출 대신에 정치인들의 동성애 스캔들 기사를 가장 비중 있게 다루며, 특히 선정적 표현으로 독자들의 관심을 유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신문사별 등장주체에 대한 Two-way Chi-square값이 146.21($p < .05$)로 나타나, 신문사(국민일보, 한겨레, 조선일보)에 따라 등장주체(교계, 정치인, 학생, 예술관련 인사,

전문가 집단, 시민단체, 인권단체)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7〉 동성에 관련 신문사별 등장주체 유형 (n=461)

		등장주체							합계	
		교계	정치인	학생	예술관련 인사	전문가 집단	시민 단체	인권 단체		
신문사	국민일보	62	18	4	11	10	10	9	115	Chi-square =146.21*
		50.0%	14.5%	3.2%	8.9%	8.1%	8.1%	7.3%	100.0%	
		13.6%	3.9%	.9%	2.4%	2.2%	2.2%	2.0%	27.2%	
	한겨레	6	30	11	32	7	7	58	139	
		4.0%	19.9%	7.3%	21.2%	4.6%	4.6%	38.4%	100.0%	
	조선일보	17	49	7	46	10	18	34	181	
9.4%		27.1%	3.9%	25.4%	5.5%	9.9%	18.8%	100.0%		
합계	85	97	22	89	27	35	101	456		
	18.6%	21.3%	4.8%	19.5%	5.9%	7.7%	22.1%	100.0%		

Note: d.f.=12, p<.05*

(4) 신문사별 일화프레임과 주제프레임 분석 결과

일화프레임은 사태의 책임을 특정 개인에게 돌리는 역할을 하고, 주제프레임은 개인이 아닌 사회에게 책임을 묻는 식으로 전개되는데, 뉴스 프레임의 형식이라는 측면에서 동성에 보도를 살펴보면, 주제프레임보다 일화프레임이 우세하게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동성애가 개인의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동성애의 책임 또한 개인에게 귀속됨을 의미한다. 또한 동성애가 후천적(환경적) 요인과 선천적(유전적) 요인에 의한 논쟁이 심화되고 있는 사안임을 감안할 때 언론은 이에 대한 깊이 있는 정보와 정확한 팩트를 독자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표8>에 나타나 있듯이 3개 신문사 모두 일화프레임 빈도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겨레신문은 동성애의 원인이 유전적 요인에 기인한다는 기사 작성으로, 동성애가 개인의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을 넘기 때문에 비난할 수 없으며, 시대의 윤리를 앞세워 사회적 변화로 인한 동성애자 끌어안기를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일보는 동성애의 원인이 환경에 기인한다는 기사를 주로 작성하였다. 즉 동성애는 성

적 정체성, 가치관정립이 불안한 청소년기에 호기심, 매력적인 동성과의 우연한 기회 등에 의해 발현되는 것으로, 치유 받을 대상으로 인식하고, 동성애자 끌어안기 등 현상만을 보도하기에 급급했다. 이것은 3개 신문사 모두 동성애에 대한 독자들의 실질적 판단에 도움을 줄만한 충분한 정보 제공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인다.

〈표8〉 동성애 관련 신문사별 일화·주제프레임 비교 (n=409)

	국민일보	한겨레	조선일보	합계
일화프레임	94(75.2%)	117(76.5%)	157(85.8%)	368(79.8%)
주제프레임	31(24.8%)	36(23.5%)	26(14.2%)	93(20.2%)
합계	125(100%)	153(100%)	183(100%)	461(100%)

V. 결론 및 논의

동성애는 종교적, 사회적, 정치적 특성에 따라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여러 집단에 의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사회 갈등으로, 이 연구는 교계를 포함하여 진보와 보수 등 다양한 계층에서 갈등하는 동성애에 대한 뉴스 프레임 연구를 통해 언론 보도가 사회 갈등에 대해 어떠한 시각으로 해석하고 보도하는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언론이 동성애를 둘러싼 여러 사건이나 쟁점을 신문사별로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기독교 이념을 바탕으로 운영되어 온 국민일보와 보수 성향의 조선일보, 진보 성향의 한겨레신문 간에 동성애 차별 금지, 법적 허용에 대한 찬반의 논쟁 속에서 어떤 목소리를 상대적으로 더 강화시키고 약화시키려는지를 탐색하고자 국민일보, 조선일보, 한겨레를 대상으로 프레임 분석을 시도했다.

뉴스 프레임 분석을 위해 긍정과 부정의 2가지 큰 틀 아래 6가지 프레임을 도출할 수 있었다. 우선 부정적 시선으로는 동성애를 성경교리에 연결시켜 도덕성과 윤리성을 무너뜨리고, 창조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바라보는 것, 그로 인한 교계 내 대립과 갈등이 드러났다. 또한 사회윤리 및 청소년 정서에 해로운 영향을 주는 불온한 코드가 도출되었다. 긍정적 시선은 동성애자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포용하자는 사회통합의 사회적 시각으로, 이성애 규범에 따라 차별받는 성적 소수자이자 사회적 약자의 시선으로

보도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동성애를 과학적 측면으로 접근하여 유전적으로 동성애자가 이성애자와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 보도로, 동성애가 환경에 의한 후천적 요인이 아닌 유전에 의한 선천적 요인이 도출되었다.

연구결과, 국민일보는 동성애를 청소년의 성적 정체성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근거에서부터 가족과 사회의 안정을 위협한다는 근거까지 사회윤리 및 청소년 정서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인 시선, 즉 ‘성경교리’, ‘청소년 위해’, ‘갈등/내분’ 프레임이 우세했고, 한겨레와 조선일보는 소수자에 대한 배려 교육의 필요성에서부터 동성애가 선천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의학적 근거까지 동성애를 인정하고 포용하는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회통합’과 ‘사회약자’ 프레임이 우세했다. 이 같은 분석결과는 정치를 포함한 사회갈등 이슈를 보도하는 진보와 보수 언론 프레임을 연구한 결과와는 차별적인 결과를 보여준다. 즉 보수를 대표하는 조선일보의 경우 동성애에 대한 보도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가치관에 입각한 논조 대신에 사회분위기와 사회변화를 반영한 논조로 흐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사회적 논의의 중요한 사안이 아닌 경우, 그 시대에 허용되는 도덕적·이념적 인정 구조를 반영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국민일보는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동성애는 후천적 요인에 의해 형성되므로, 특히 성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청소년 시기에 동성애에 무방비 상태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부정적 프레임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한겨레는 동성애자들에 대해 더 이상 편견이나 선입견으로 거부하거나 배척하지 않아야 하며,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혐오하거나 차별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동성애자들의 권리찾기 운동이 잇따라 승리를 거두고 있다는 내용의 긍정적 프레임이 우세하게 드러났다. 또한 국민일보는 동성애가 선택가능한 성이라는 관념을 자주 노출시키고 있다. 즉 성이 선택가능하다는 것을 동성애자들의 의식에까지 파고들어 해결할 수 없는 딜레마에 봉착하게 하고, 대다수 청소년 동성애자들은 자신의 내면에서 이는 동성애적 욕망을 억누르기 위해 힘든 투쟁을 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국민일보의 보도 태도는 동성애를 정상적인 정신적·성적 발달을 이루지 못한 결과로 보는 부정적 시각에 뿌리를 두는 것으로 해석된다.

등장주체의 경우, 국민일보는 ‘교계’ 인사가 가장 많은 빈도로 노출되었고, 한겨레는 동성애자를 포함한 진보 성향의 ‘인권단체’가 가장 많이 등장했으며, 조선일보는 ‘정치인’이 가장 많이 노출되었다. 조선일보의 경우, 정치인들의 동성애 스캔들을 비롯해,

각종 선거 때마다 동성애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정치인들의 발언 보도 빈도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기독교 이념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국민일보의 경우 성경교리를 가장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목사 등의 교계 인사를 등장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통합과 변화의 목소리를 내는 진보 성향의 한겨레는 동성애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의 정립을 전파시키기 위해 특히 동성애자들의 솔직하고 힘겨운 사연을 담은 기사를 많이 노출시켰다. 그러나 보수 성향의 조선일보는 동성애에 대한 신문사의 이념 표출 대신에 정치인들의 동성애 스캔들 기사를 가장 비중 있게 다루며, 특히 선정적 표현으로 독자들의 관심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3개 신문사 모두 단순정보를 전달하는 스트레이트 기사(약 75.5%)가 대부분이라는 점이 부각되었는데, 이는 동성애를 아직 사회적 논의의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보수 성향의 조선일보(88%)와 기독교계 신문인 국민일보(73.6%)가 진보 성향의 한겨레(62.1%)보다 더 많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보수 성향과 기독교계가 진보 성향보다 동성애에 대해 덜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에 대한 대안 제시에도 소극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보도의 대상이 되는 이슈 영역 중 합의영역은 이견이 없는 이슈로서, 주류언론은 합의된 영역에 대해 적극 지지하는 역할을 하며, 사회의 지배이데올로기를 벗어나는 일탈 영역은 미디어 논의에서 배제된다. 다시 말해 주류언론은 지배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난 의제들은 한 사회의 공론의 장에서 논의되는 공중의제에서 제외하는 경향이 있다(Hallin and Gitlin, 1993). 에이즈가 처음 발병했을 때 미국의 권위 있는 주류미디어는 이를 뉴스보도에서 배제 혹은 회피한 경우가 그 예이다(Fejes and Petrich, 1993).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안과 같은 사회적 갈등을 풀어나가는데 기독교계 언론이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동성애에 대한 보도를 할 때 단순히 사건 정보를 전달하는데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한국 기독교계의 입장을 정리해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동성애가 유전적이고 선천적이라는 생물학적 기원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르베이가 1991년 남성 동성애자들과 이성애들의 뇌 구조에 차이가 있다고 발표한 이래 동성애가 생물학적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는 설이 우리 사회에 매우 빨리 퍼져 나갔다. 그러나 1991에서 1994년 사이에 경쟁적으로 보도되었던 동성애 생물학적 기원설은 그 후 많은 연구자들의 후속 연구를 통해 부정되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

늘날 우리 사회에 동성애가 생물학적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는 1990년대 초반의 논문들은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는 반면에 이를 부정하는 많은 논문들은 우리 사회에 잘 소개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지속될수록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담론은 과학적 진실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자라는 성적 취향 소수자의 인권 보호 차원으로만 다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머지않아 국내에도 동성애자 차별금지법이 도입될 것이고, 이는 우리 사회를 더 큰 갈등 국면으로 내모는 형국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계 언론들은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과학적 연구결과들이 발표될 때마다 발 빠르게 소개해서 더 이상 20년 전에 부정된 논문들이 우리 사회를 호도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세계적 동성애 갈등 및 확산 상황을 단순히 전달하는 기사에 그치지 않고, 이에 대한 영향력을 감지하고, 통찰하여 각계 전문가들의 칼럼들로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하고, 여기서 나온 결론들을 신문 사설 등을 통해 동성애 갈등 해소 방안을 제시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국은 OECD 27개 회원국 중 사회갈등 지수가 4위로, 사회갈등이 매우 높은 편이다. 일반적으로 사회갈등은 민주주의 정도와 정부의 정책수행능력과 반비례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언론도 사회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즉 언론은 사회적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들 수도 있지만,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중재하고 사회통합을 유도하는 순기능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 국내 신문사들은 각 신문사에서 의도하는 등장주체를 빈번하게 노출시키며 동성애 찬반여론에 앞서 독자들이 실질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을 하지 못했으며, 그로 인해 사회적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드는 역기능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각 언론사 등은 향후 동성애 관련 사회 갈등을 줄여나가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그에 따른 갈등도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동성애에 대한 언론의 다양한 관점을 살펴볼 수 있었던 탐색적 연구로서 의미가 있다. 이는 언론의 의미구성 방식의 차이가 가져올 수 있는 개인적이고 다양한 차원의 영향에 대해 보다 종합적으로 살피는 연구에 토대를 마련해 줄 것이다. 프레임링 연구는 단순한 소재 차이나 해당 사안에 대한 이분법적 구분의 차이만을 탐

색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사안에 대해 언론의 메시지가 특정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사회적 현실구성의 방식을 밝힌 후에 그러한 의미구성 방식이 가져올 다양한 차원의 효과를 살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조인숙·나은경, 2013: 323). 동성애에 대한 언론 보도의 시각이 달라짐에 따라 수용자의 해석 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연구는 이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후속 연구를 통해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분석 대상의 신문을 기독교 뿐 아니라 불교 등 타 종교까지 확장시켜 분석하는 것도 이 연구에서 도출하지 못한 함의를 발견하는 단초가 되리라 판단된다.

동성애자들의 권리 찾기 운동이 사회의 한 목소리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기독교 단체 및 연구자들 또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슈로 떠오르는 동성애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보다 많은 연구를 통해 사회 갈등에 대한 입장 정리와 활발한 의견이 개진되기를 기대해본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강내원 (2002). “사회갈등 보도기사의 비판적 읽기.” 『한국언론학보』. 46(3). 5-44.
- 곽분이 (1996). “동성애에 대한 성서의 입장.” 『한국여성신학』. 27. 52-63.
- 김선남 (2002). “매매춘 관련 TV 뉴스의 프레임 분석.” 『한국방송학보』. 16(2). 41-76.
- 김원용·이동훈 (2005). “핵폐기장 중심 원자력 관련 보도에 나타난 매체별 갈등 보도의 프레임 비교 연구.” 『한국방송학보』. 19(4). 168-213.
- 김훈순 (2004). “한국 언론의 젠더 프레임.” 『한국언론정보학보』. 27. 63-91.
- 나미수 (2004). “핵폐기장 유치에 대한 텔레비전 뉴스 프레임 분석.” 『한국언론정보학보』 26. 157-208.
- 박경숙 (2002). “집단 갈등 이슈의 방송 뉴스 프레임 분석.” 『한국언론학보』. 46(2), 310-340.
- 박수미·정기선 (2006).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적 태도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70. 5-26.
- 서동진 (2005). 인권, 시민권 그리고 섹슈얼리티. 『경제와 사회』. 67권. 66-87.
- 양정혜 (2001). “사회갈등의 의미 구성하기: 의료분쟁 보도의 프레임 분석.” 『한국언론학보』. 45(2). 284-315
- 양정혜 (2010). “뉴스 미디어가 재현하는 범죄현실: 아동대상 성폭력 범죄의 프레임.” 『언론과학연구』. 10(2). 343-379.
- 이승구 (2010). 『광장의 신학』 수원: 합신대학원출판부.
- 이우찬 (2000).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접근.” 『대학과 복음』. 4. 150-169.
- 이준웅 (2001). “갈등적 이슈에 대한 뉴스 프레임 구성방식이 의견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46(1). 441-482.
- 이준웅 (2005) “갈등적 사안에 대한 여론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프레이밍 모형 검증 연구.” 『한국언론학보』. 49(1). 133-162.
- 이현우·이병관 (2005). “부안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유치 쟁점에 대한 언론보도 프레임분석.” 『한국지역언론학회지』. 5(3). 516-547.
- 유정철 (2000). “동성애: 유전인가 환경적 요인인가?” 『리더스 라이프』. 2(10). 109-112.
- 장용호 (1988). “사회운동과 언론: 대중매체에 의한 사회적 구성에 관한 연구.” 『현상과 인식』. 41. 37-72.
- 정의철 (2008). “에이즈 뉴스 프레이밍 분석 : 비판적 헬스저널리즘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2(4). 223-249.
- 조인숙 · 나은경 (2013). “비만, ‘일탈’과 ‘낙인’ 사이: 비만 보도 프레임 유형이 비만과 비만인에 대한 인식 및 예방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57(2). 316-341.
- Bateson, G. (1972). *Steps to Ecology of Mind: Collected Essays in Anthropology, Psychiatry, Evolution, and Epistemology*. University of Chicago

- Press.
- Best, J. (1995). *Images of Issues: Typifying Contemporary Social Problems*. New York: Aldine de Gruyer.
- Brian S. M., G. D. Michael, M. N. Caroline, B. Sven, J. S. Nicholas, H. H. Dean (2005). "A genomewide scan of male sexual orientation". *Human Genetics*. 116: 272-278.
- Byne, W. (1994). "The Biological Evidence Challenged: Even if genetic and neuroanatomical traits turn out to be correlated with sexual orientation, causation is far from proved." *Scientific American*. 270(5), 50-55.
- Carey, J. W. (2002). "Preface.", *Journal of Media and Religion*. Vol.1. No.1. 1-3.
- Chyi, H. I. and M. McCombs (2004). "Media salience and the process of framing: Coverage of the Columbine school shooting."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81(1), 22-35.
- Entman, R. M. (1993). "Framing, Towards Clarification of a fractured Paradigm." *Journal of Communication*, 43(4). 51-68.
- Fejes, F. and K. Petrich (1993). "Invisibility, homophobia and heterosexism: Lesbians, gays and the media." *Critical Studies in Media Communication*. 10. 395-422.
- Figueroa, J. P., J. Duncan, L. Byfield, K. Harvey, Y. Gebre, T. Hylton-Kong, F. Hamer, E. Williams, D. Carrington and A. R. Brathwalte (2008). "A Comprehensive response to the HIV/AIDS epidemic in Jamaica: a review of the past 20 years." *West Indian Medical Journal*. 57(6). 562-576.
- Frost, D. M. and I. H. Meyer (2009). Internalized homophobia and relationship quality among lesbians, gay men, and bisexual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6(1). 97-109.
- Foucault, M. (1976). *Historie de la sexualite*. 이규현 역(2004) 『성의 역사. 1, 앞의 의지』. 서울: 나남출판.
- Gates, G. J. (2011). "How many people are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The williams Institute*. 1-8.
- Gitlin, T. (1980). *The Whole World Is Watching: Mass media in the making and unmaking of the New Left*.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Goffman, E. (1974). *Frame analysis: An essay on the organization of experience*. Boston: Northeastern University Press.
- Hall, S. (1982). "the rediscovery of ideology: Return of the repressed in media studies." *Culture, Society and media*.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56-90.
- Hallahan, K. (1999). "Seven Models of Framing: Implications for Public Relations." *Journal of Public Relations Research*. 11(3). 205-242.
- Hallin, D. C. and T. Gitlin (1993). "Agon and Ritual: The Gulf War as popular culture and as television drama." *Political Communication*. 10. 411-424.
- Helminiak, D. A. (2000). *What the Bible Really Says about Homosexuality*. 김강일

- 역 (2003). 『성서가 말하는 동성애-신이 허락하고 인간이 금지한 사랑』. 서울: 해움.
- Hamer, D. H., S. Hu, V. L. Magnuson, N. Hu and A. M. Pattatucci (1993). "A linkage between DNA markers on the X Chromosome and male sexual orientation." *Science* 261(5119). 321-327.
- Heg, D. and R. van Treuren (1998). "Female - female cooperation in polygynous oystercatchers." *Nature* 391. 687-691.
- Iyengar, S. (1991). *Is Anyone Responsible? How Television Frames Political Issu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eVay, S. (1991) "A Difference in Hypothalamic Structure between Heterosexual and Homosexual Men." *Science* 253(5023). 1034-1037.
- LeVay, S. and D. H. Hamer (1994). "Evidence for a Biological Influence in Male Homosexuality." *Scientific American* 270(5). 44-49.
- Malloy, E. A. (1982). *Homosexuality and the Christian Way of Life*. NY: University Press of America
- Nisbet, M. C. (2010). "Knowledge Into Action: Framing the Debates Over Climate Change and Poverty." In Paul D'Angelo and J. A. Kuypers (Eds.). *DOING NEWS FRAMING ANALYSIS: EMPIRICAL PERSPECTIVES*. UK: Routledge. 43-83.
- Olien, C. N., G. A. Donohue and P. J. Tichenor (1995). Conflict, consensus and public opinion. In Glasser T. and C. Salmon (Eds.). *Public opinion and the communication of consent*. NY: The Guilford Press.
- Pan, Z., and G. M. Kosicki (1993). "Framing Analysis: An Approach to News discourse." *Political Communication*. 10. 55-75.
- Price, V. and D. Tewksbury (1997). "News values and public opinion: A theoretical account of media priming and framing." In Barrett, G. A. & F. J. Boster (Eds.), *Progress in communication science: Advance in persuasion*. Vol. 13. 173-212.
- Rice, G., C. Anderson, N. Risch, G. Ebers (1999). "Male homosexuality: absence of linkage to microsatellite markers at Xq28." *Science*. Apr 23;284(5414). 665-657.
- Semetko, H. A. and P. M. Valkenburg (2000). "Framing European politics: A content analysis of press and television news." *Journal of communication*, 50(2). 93-109.
- Shoemaker, P. J. and S. D. Reese (1996). *Mediating the message: Theories of influences on mass media content*. (2nd ed.). White Plains, NY: Longman.
- Singer, E. (1994). *Gay and Lesbian stats*. NY: The New Press.
- Tankard, J. W., L. Hendrickson, J. Silberman, K. Bliss and S. Ghanem (1991). *Media Frames: Approaches to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Boston: the Association for Education in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Convention.
- Valkenburg, P. M. and H. A. Semetko and C. H. de Vreese (1999). "The effects

of news frames on readers' thoughts and recall". *Communication Research* 26. 550-56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4302082>, 연합뉴스 1998년 1월 9일자. "국내 동성애자 11만명 추정."

http://pdf.joins.com/article/pdf_article_prv.asp?id=DY01199806130040.

중앙일보 1998년 6월 13일자. "동성애자들 뭉친다...27일 '한동협' 발대식."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344383&retRef=Y&source=http://twtkr.olleh.com/view.php%3Flong_id=LeCDJ KBS 9시 뉴스 2012년 8월 22일자. "에이즈 환자는 문란?...'편견 교과서' 황당."

ABSTRACT

**An Analysis of News Framing on Homosexuality
: focused on the three Major Korean Dailies:
Kukminilbo, Chosunilbo, Hankyoreh**

In-sook Cho (Kookmin University)

Jeong-chil Yoo (Kyung Hee University)

Many serious debates are going on about homosexuality all over the world nowadays. This study examined the newspaper articles on homosexuality in the three major dailies, the 'Kukminilbo', 'Chosunilbo' and 'Hankyoreh' during the period, from January of 1990 to July of 2012. In order to look at how news media perceive and communicate about the social conflict of homosexuality in the Korean society, the news articles were analyzed on the basis of the number of articles, news types, main characters, news framing and systematic framing. The six major attribution appeared as follows: 'biblical doctrine', 'hazard to teens', 'internal conflict', 'social integration', 'minority in the society', 'scientific standpoint'. 'Kukminilbo' reported about homosexuality with negative outlooks, mainly in the framing of 'biblical doctrine', 'hazard to teens' and 'internal conflict'. While, 'Hankyoreh' and 'Chosunilbo' reported about homosexuality with positive outlooks, mainly in the framing of 'social integration', 'minority in the society'. The two media, 'Hankyoreh' and 'Chosunilbo' sometimes reported some evidence supporting genetic influences in homosexuality, but did not deal with articles, criticizing the genetic influences or reporting the environmental influences. Homosexuals assert their basic rights on the basis of some researches showing differences in genetic structures between homosexual and heterosexual men. However, many researches has shown that homosexuality is not genetic. Therefore, media should deal with homosexuality as a matter of sexual orientation rather the issues

of basic rights of the sexual minorities. The three media have not provide the readers proper information on the scientific or social issues of homosexuality. The simple reports on homosexuality by media would not be able to resolve social conflicts, but may arise social conflicts between different groups with different interests. The media should play key roles to resolve the potential conflicts arising by homosexuality disputes in our society. It is high time for christian researchers and media to set up theoretical perspectives on homosexuality disputes.

Key words: homosexuality, Bible-doctrine, framing, genetic factors, environmental factors